



HERE & NOW

지금 & 여기에

사가레조(Sagarejo, საგარეჯო) 선교센터

우리 부부는 사가레조 선교센터에서 협력사역을 합니다. 여기에서 GP선교사 두 가정과 함께 팀사역을 합니다. 주사역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사역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가레조’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공항에서 동쪽으로 37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1만명의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선교센터 주변에는 여러개의 학교들이 있어서 교육사역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센터의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올 해 초에 정부로부터 준공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외부 정원 정비공사가 남아 있는데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교센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조지아 현지에 오셔서 인테리어공사, 정원 정비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팀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그리고 사가레조 선교센터에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단기사역자로 도울 수 있는 분도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첫째, 이번 한국 방문 기간중에 오라선교회의 특별한 초청과 프로그램으로 전주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나누며 위로와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가 추천하여 함께 참석한 조지아의 김&고 선교사부부, 튀르키예의 노&박 선교사부부가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선교지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사가레조 선교센터에서 함께 사역하는 GP선교회소속의 김&임 선교사부부와 김&고 선교사부부와 팀 사역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선교센터를 통하여 사가레조 지역사회의 다음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센터의 남은 공사와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단기사역자로 돕는 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두아들 택원, 택수 가정의 신앙, 직장,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남&이 선교사가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